

미스터리 소설 · ALDUS LIBRIS

자정의 색인

닫힌 기록관에서 발견한 하나의 이름



해류온 지음

The midnight index

차례

- 01 없는 책의 반납일
- 02 물에 젖지 않는 편지
- 03 서가 사이의 계단
- 04 지워진 사람의 필체
- 05 열쇠가 기억하는 문
- 06 마지막 이름을 부르면

샘플에는 제1장의 도입부를 담았어요.



제1장 / 없는 책의 반납일

시계가 멈춘 뒤에 도착한 책

자정이 지났을 때 반납함에서 종소리가 났다. 기록관의 시계는 열한 시 사십칠 분에 멈춰 있었으므로, 윤은 자정이 지났다는 사실을 종소리로 알았다. 그는 펜 뚜껑을 닫고 출입 기록을 펼쳤다. 오늘의 마지막 방문자는 두 시간 전에 나갔다.

반납함에는 표지가 없는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. 물기가 번진 듯 검어진 천으로 등을 감쌌고, 책등에는 숫자 대신 얇은 선 세 개가 새겨져 있었다. 윤은 장갑을 끼고 첫 장을 넘겼다. 대출자 이름이 있어야 할 곳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.

그는 그 책을 빌린 적이 없었다. 정확히 말하면 그 책을 본 적조차 없었다. 대출 기록에도 없었다. 반납 도장을 찍으려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. 날짜 칸에는 내일의 날짜가 있었고,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“어제까지”라고 쓰여 있었다.

윤은 서랍에서 폐기 목록을 꺼냈다. 기록관의 모든 책은 들어온 날짜와 나간 날짜를 남겼다. 남기지 않는 것은 사람이었다. 다섯 해 전 함께 일했던 기록원의 이름은 어느 목록에도 없었다. 윤만 그 이름을 기억했다.

책 사이에서 황동 열쇠가 미끄러져 나왔다. 바닥에 닿는 소리는 없었다. 열쇠는 윤의 손바닥 위 한 뼘쯤에서 멈추더니, 복도 끝의 막힌 벽을 향해 천천히 돌아갔다. 벽에는 조금 전까지 없던 문손잡이가 생겨 있었다.

윤은 책을 덮지 않았다. 마지막 장에 연필 자국이 보였기 때문이다. 누군가 한 문장을 쓰고 지운 흔적이었다. 빛을 비스듬히 기울이자 눌린 글씨가 드러났다. “나를 찾기 전에, 네가 빌려 준 것을 기억해.” 기록관 어딘가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.



이야기의 첫 장에서 발췌했어요.

자정의 색인

단한 기록관에서 발견한 하나의 이름

글	해류온 (가상 작가)
기획	접힌달 이야기실 (가상 브랜드)
편집·디자인	Aldus Libris
제작	2026년 10월
파일	포트폴리오 발췌본 · 6쪽

가상 브랜드로 만든 샘플이에요.

실제 출간·판매된 책이 아니에요.

글과 이미지는 이 샘플을 위해 새로 만들었어요.

이야기의 인물·단체·사건은 모두 허구예요.